

'나는 기생충이야'

간흡충 이야기 ⑥

李 純 炯

그러므로 우리 간흡충이 일으키는 병변은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간에 들어가 살고 있느냐 하는 양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마리수에 따라 좌우됩니다. 못자국이 한 둘 있는 벽은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있듯이 우리 간흡충이 한두 마리 또는 몇마리 있을 때는 별반 건강에 큰 해를 끼친다 할수 없으나 수십, 수백마리가 기생할 때는 사람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벽도 수없이 못질을 하던 부서지는 것과 같이 애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간흡충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당장에라도 민물고기 잡숫는 일을 중지하십시오. 한마리라도 더 들어가는만큼 여러분의 간은 나빠지니까요. 또 혹시 대변에서 간흡충란이 나온다고 절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총란계산법을 이용한 정밀검사를 받으십시오.

평소에 건강하게 지낸 분으로서

대변에 간흡충란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아마 우연히 감염된 분이라 생각되며, 이런 경우 대개 몇마리 밖에 발견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니다. 그러므로 간흡충에 걸렸다고 자포자기하여 민물고기를 일부러 더 먹는다거나 여태껏 하던 사업이나 공부를 앓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간흡충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은 대체로 셋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경감열일 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지냅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해가 감에 따라 차차 별폐의 수가 많아지면(우리 간흡충은 간속에서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민물고기를 반복해서 먹기 때문에 새로운 간흡충이 속속 보충된다.) 병이 차차 깊어지는데 이때에는 식욕이 있다 없다 하며, 배가 들부룩하고 설사와 함께 몸이 붓기도 하며

간이 커진다고 합니다. 만일 이런 때에도 더 증감염이 되어 총체수가 많아지면, 아주 증독한 증상이 이른바 간경화증의 증세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간흡충이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초기증상을 Koenigstein이라는 분이 1949년에 중국본토에서 자세히 관찰하였습니다. 즉 1946년 봄에 충공군이 쳐들어오자 중국본토에 살고 있던 독일계 유대인 약 2만명이 상해로 피난하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피난민수용소에서 소금에 저린 민물고기를 먹고 약 20~30%가 우리 간흡충에 걸렸습니다. 이 민물고기는 알고보니 인분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 양어장에서 잡은 것이었다 합니다.

이들에게서는 민물고기를 먹은지 한달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발병은 40°C에 가까운 열과 오한이 서서히 또는 갑자기 나타났었습니다. 간이 커지고 누르면 아프고, 눈에는 노랗게 황달끼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비장(지라)도 커지고 호산구증가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 3~4주 후에야 대변에서 처음으로 우리 간흡충의 알을 검출할 수 있었다 합니다.

이런 초기증상이 있은후 몇주일 지나면 만성기가 되며 감염이나 담

낭염의 특이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담즙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소화는 더 안되고 점점 몸이 마르며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때로 설사가 나거나 빈혈이 오며 몸이 붓거나 배에 물이 차게 됩니다. 배에 물이 차는 증상을 복수(腹水)라 하는데 이것은 간으로 들어가는 커다란 정맥(門脈)이 간경화로 인하여 오그라드는 간조직에 눌려 좁아지면서 피속의 액체성분이 새어나와 복강내에 차는 증상입니다. 복수가 많이 차면 폐를 압박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며 앉아서 숨을 몰아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의 기능도 나빠져서 제독작용(除毒作用)이 낮아지고 피부의 색소침착이 많아집니다. 때문에 얼굴과 몸에는 검은 검버섯, 기미가 많이 끼며 이때 황달의 누른빛과 함께 검고 누른 독특한 피부의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간흡충이 내는 독소로 인한 증상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맥박이 빨리 뛰며 어지럽고 사지나 근육이 떨리거나 경련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우리 간흡충은 사실 아주 악질적 기생충은 아니어서 우리 간흡충만 가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우리 간흡충 때문에 간경화증이 오거나 간암이 생겨 저항성이

낮아졌을 때 여러가지 합병증이 사 람에 겹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간흡충에 걸린 것을 확실하 게 진단하려면 대변검사를 해서 우 리 간흡충의 충란을 찾아내는 일입 니다. 임상적으로 진단할때에는 우 리 간흡충 유행지역에서 민물고기 를 날로 먹은일이 있는가를 알아보 고, 간이 부어오르며 간염의 증상 이 나타나는 일이 있는가를 알아보 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변에서 충란 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는 십이지 장까지 튜브를 넣어 담즙이나 십이 지장액을 뽑아내어 검사하면 더욱 쉽게 충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척 요꼬가와 흡충 또는 이형흡충등 우리 간흡충의 알 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충란이 있으 니 그 감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우리 간흡충을 무 참하게 으깨어 만든 항원으로 피내 반응을 보는 수도 있습니다. 마치 결핵을 진단할 때 튜버크린 반응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내반응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고, 우리 간흡충의 사촌 이나 육촌쯤 되는 친척이 있을때에 도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방 법만으로 확실한 진단을 내리는 것 은위험한 일입니다. 또 일단 앓고 난후에도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피내반응으로는 아주 많은 사람

들중에서 혐의자만 골라내는 보조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수천 또는 수만명을 대상으로 대 변검사를 하려면 기술적으로나 경 제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간편 하고 경제적인 피내반응을 이용하 여 양성자를 추려낸 다음 이 양성 자들중에서 대변검사를 통하여 간 흡충증 환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내반응에 양성으로 나 왔다 하여 반드시 간흡충증환자라 고 말할 수 없으며 피내반응 양성 이라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느 국민학교에서 이 피내반응 을 실시하였었는데 양성으로 판명 된 한 어린이가 계속 학교에 나오 지 않더랍니다. 담임선생님이 이상 히 여겨 가정방문을 해서 부모를 만나보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 더답니다.

이 어린이가 양성으로 판정을 받 은후, 집에 돌아와 자기가 가정의 학사전을 펼쳐보고 우리 간흡충이 어떤 것인가를 읽었답니다. 거기에는 심하면 죽는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를 본 어린이는 앞으 로 자기가 죽을 것인데 공부는 해 서 무얼하느냐 하면서 학교에는 가 지않고 매일 울고만 있더랍니다. 물론 이 어린이는 나중에 대변검사 를 한 결과 위양성(僞陽性)이라는

건강 상담실

▷ 이번호의 해답자
손 중 하 서울적십자병원 일반외과과장

상처 2, 3日內 나면
파상풍 안걸리나

문 상처가 났을 때 2, 3 일내로 그 상처가 아물면 파상풍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요?

상처가 나면 페니실린을 먹어두면 좋습니까?
<전북이리시 이형전>

꺼져들어 두면 피부,
저절로 再生

답 상처가 났을 때 페니실린을 먹는 것은 좋습니다.

상처가 별로 크지 않으면 소독제로 빨리 세척하고 꺼-즈를 덮어두면 항상제를 먹을 필요없이 생리현상으로 피부세포가 재생됩니다.

그러나 상처가 크고 깊

다면가하면 오물감염이 생기므로 봉합. 세척을 하고 농양을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항생제를 써야 합니다.

2, 3일 사이에 상처가 아물면 오염이 덜 되었거나 파상풍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상풍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는 그때 그때의 상처를 직접 보아야 되므로 여기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약으로는 테트라 싸이 크린제제가 좋습니다.

예방약으로 파상풍 예방주사등이 있으나 외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손 중 하>

것이 판명되어 다시 명랑한 학교생활을 계속하였지만 피내반응은 가끔 이런 웃지 못할 얘기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 간흡충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몹쓸 기생충이기는 할망정 우리 간흡충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정신적 타격을 주고자하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피내반응이나 때변걸사를 해

서 감염여부를 판정내리는 선생님 들께서는 신중을 기하시어 우리 간흡충으로 하여금 공연한 욕을 먹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간흡충을 없애는 약은 앞서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직 개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위협도 받지않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필자=중앙의대 기생충학부교수·의박>